

# ‘개화’라는 신화의 해체

(김종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최연식(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1. 통설에 대한 도전

신화처럼 굳어진 통설과 통념에 대한 도전은 매력적인 영역이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과제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개화파의 목표 및 행동양식에 대한 통념도 그러하다. 이 책이 밝히고 있듯이, 이에 대한 통념은 실학사상(특히, 박지원과 박규수)에 연원을 두고 있는 개화파의 사상은 한마디로 친청(親淸) 사대주의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근대적 자주사상이라는 것이다.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사학계를 중심으로 주장된 이 통념은 이데올로기의 성역(聖域)도 간단히 뛰어넘어 북한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이 책은 역사와 이념을 초월한 난공불락의 요새에 대한 고독하지만 집요한 도전이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1871년 유대치와 오경석이 김옥균을 포섭하면서 처음 결성되어, 1879년 이동인의 일본 밀파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성된 우호적인 국내외 여건을 활용하며 1884년 외세를 끌어들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변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사료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한편, 국내외의 새로운 사료들을 발굴하고 해석함으로써, 비밀결사 ‘개화당’ 역사의 온전한 복원을 시도했다. 이 점에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방대한 사료의 정밀한 활용과 동시에 분석적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 있다.

## 2. 개화당의 주제, 동력, 목표

이 책에서 기존의 통설에 도전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평자가 보기에 그 주제들은 세 가지 쟁점들로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는 개화당 핵심세력의 신분적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는 개화당의 개혁은 외세에 의존한 개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개혁 동력의 소재 문제이다. 셋째는 개화당은 후쿠자와 유키치 류(類)의 문명개화를 일관되게 추진했다기보다 기본적으로는 폐쇄적 신분사회의 해체를 열망했다는 개혁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세 가지 주제의 상호 연관성에 천착하면서 개화당의 신화 해체 작업을 일관되게 시도했다.

### (1) 개혁 주체의 성격

이 책은 1874년 3월 6일 베이징 주재 영국 공사관을 찾은 역관 亦梅 오경석(1831-1879)의 행적 소개로 시작한다. 오경석은 1853년 이후 1875년까지 13차례 중국을 왕래했고, 중국에서 가져온 신서들을 의관 大致 유흥기(1831-?)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유대치는 오경석이 전해준 신사상을 20세(1871년?, 우리나라이로 20세면 1870년) 전후의 古筠 김옥균(1851-1894)에게 전

파했다. 이로써 오경석, 유대치, 김옥균의 관계는 한국 개조의 예언자, 지도자, 담당자가 되었다.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의 평가였다. 또 이 책에서는 1877년 27세의 김옥균이 17세의 박영효(1861-1939)를 포섭했고, 김옥균과 박영효의 첫 번째 작품은 1878년 승려 이동인(1849?-1881)을 일본에 밀파한 것으로 소개했다.

이들의 신분과 처지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은 주변부적 존재들이었다는 점이다. 오경석과 유대치는 저자가 '의역중인(醫譯中人)'이라고 명명한 신분상의 주변부적 존재였다. 말아들이었지만 세도가의 양자로 보내진 김옥균과 왕실의 부마였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었던 박영효는 정치적으로 주변부적인 존재였다. 오경석과 유대치가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불교 토론을 계기로 김옥균이 박영효를 포섭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동인의 밀파를 염두에 두면 의미심장하다. 결국 종합하면, 개화당의 원조와 활동가들은 모두 신분적, 정치적, 사상적으로 조선 사회의 주변부적 존재의 한계를 통절히 느끼고 있던 인물들이었던 셈이다.

## (2) 개혁의 동력

저자는 서문에서 개화당의 대외활동을 “대외적 책동”(10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의 그러한 활동을 결국 '비밀외교'라는 형용모순적 조어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고뇌를 피력했다. 그래서 저자는 개화당의 결성을 '비밀결사'로 표현했고, 그들의 활동을 '밀파(密派), '밀촉(密囑), '암약(暗躍)' 등으로 묘사했다. 개화당 세력의 주변부적 속성으로 인해 현상타파를 위해서는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태생적) 한계를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일본에 밀파된 이동인이 영국이나 일본 군함을 출몰시켜 조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에 정권을 장악하려 했던 계획, 세 번에 걸친 도일(渡日)을 통해 김옥균이 차관을 도입하고 군대를 양성해 정변을 도모하려 했던 것 등은 개혁의 동력을 갖지 못해 외세에 의존해야 했던 개화당 세력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외세의 지원에 대한 순진한(?)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나자 후쿠자와 유키치와 고토 쇼지로의 음모에 기대어 일본식 참간(斬姦)으로 정변을 기도한 것도, 그리고 그것마저 3일천하로 끝난 것도 자체적인 개혁 동력의 부재 때문이었다. 오경석과 면담했던 북경 주재 영국 공사 메이어스가 말했던 것처럼, 외세에 의존한 개혁을 꿈꾼 개화당의 구상은 그야말로 '기묘한 희망(the singular hope)'에 불과했다.

## (3) 개혁의 목표

개화당의 목표는 조선의 개화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1871년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문제의 비밀결사는 1880년 말부터 1881년 초 사이에 일본인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임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결사는 처음부터 개화를 목적으로 결성되기 어려운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김옥균이 개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1884년 5월 이후였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김옥균의 개화 표방은 김옥균이 후쿠자와 및 고토의 원조를 받아내고 그들의 결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옥균이 표방한 개화가 음모와 결탁의 명분에 불과하고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면, 그들이 추진한 정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책은 비밀결사 개화당의 목표는 조선사회의 근본적 혁신, 특히 신분제 개혁이었음을 강조했다. 그 목표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향한 오랜 열망의 반영이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밝힌 개화당의 또 다른 열망은 힘

을 향한 열망이었다. 이 점에서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이 추진한 정부조직의 개혁도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세도정치의 제도화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세도가였던 대원군에게서 당시 조선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발견했다고 추론했다.

## 2. 질문들

과도한 요약이지만, 평자가 보기에 저자가 집중적으로 탐구한 이상의 세 주제들을 연결하면, 개화당은 사회적, 정치적, 사상적으로 소외된 주변부적 존재들이 결성한 비밀결사로서,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존재 기반 때문에 자체의 개혁 추진 동력을 갖지 못한 채 외세를 끌어들이는 개혁을 추진했고, 신분제 개혁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폭력도 불사하는 비윤리적 집단이다. 이런 요약이 맞다면, 통념화된 개화당 신화를 해체하려 했던 저자의 의도는 통렬하게 달성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 (1) 이름도 갖지 못한 비밀결사의 결성

오경석과 유대치가 김옥균을 비롯한 북촌의 양반 자제들을 규합하려 했다는 오세창의 증언만으로 1871년 비밀결사 결성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또한 저자도 지적했듯이, 김옥균, 윤치호 등이 개화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1884년 이후였다. 그렇다면 설령 이 비밀결사의 기원이 1871년이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개화당의 실제적 기원은 일본인들에 의한 명명이 시작되는 1880년 이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밀결사가 내적 결속력을 유지하고 정변을 향한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제 철폐에 대한 이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김옥균이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관철하려 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 문제적 인물이었던 김옥균이 유독 그 점에서 “독특하면서도 위대한 인간적 면모”(360쪽)를 가질 수 있을까? 저자가 지적했듯이, “개화당의 정치적 상상력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면(367쪽), 정변에 참여한 중인 및 상인과 양반 출신들 사이의 동상이몽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2) 외세와의 결탁 문제

분명 자국의 개혁을 외세에 의존해 추진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할 어떤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외세의 활용은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개화당의 개혁은 일본 폭도(壯士)들을 끌어들이는 유형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구상이 처음부터 선의 없이 악의로만 점철되었던 것인가? 이 점에서 국왕의 측근을 장악한 사이비 개혁론자들(357쪽)의 외세 인식과 개화당의 외세 인식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가?

### (3) 개혁 목표로서의 개화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해 자유주의적, 상대주의적 진보사관으로 극찬 받은 후쿠자와의 문명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최대 장애가 “수백 년간 누적되어 마치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조선사회의 폐습”이었다면(369쪽), 개화란 곧 그것을 깨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화는 후쿠자와 등과 맺은 음모와 결탁의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제의 질곡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을 향한 설득력 있는 catchphrase로 활용될 수도 있었다. 더구나 후쿠자와가 『학문의 권장』에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고 언명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신분 해방을 지향했던 비밀결사 개화당의 개화라는 목표를 단지 음모론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정변 직전에 개화당의 영수들이 의도한 개화란 “사이비 개혁론자들을 조정에서 몰아낸 뒤에 자신들이 주도할 참된 개혁”을 의미했고, 그 참된 개혁의 의미가 신분 차별 없는 평등 사회였다면(358쪽), 그 정치적 명분과 참된 의미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훈신의 열정이 담긴 역작을 읽고 서평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